

전남 AI 방역수칙 위반농가에 무관용 조치

과태료 부과·보상금 감액·정책자금지원 5년간 배제 무안·영암 가금농장 3곳서 'H5형 AI 항원' 검출

전남도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수칙 위반농가'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고병원성 AI가 확산하는 가운데 일부 농장에서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기 때문이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장흥에서 고병원성 AI가 처음 발생한 이후 27일 만에 전남 7개 시·군에서 14건이 발생했다.

이러한 심각한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일부 농장주들은 느슨한 방역으로 일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발생농장을 조사한 결과 농장 출입 차량과 사람에게 대한 소독 미시행, 농장 사육관리 도구 세척·소독 미흡, 전실 미운용, 하나의 장화로 전 축사 출입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이에 전남도는 농가 경각심 차원에서 위반 농가에 대해 과태료 부과는 물론 살처분보상금 감액과 정책자금 지원을 배제하기로 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역학조사 결과를 발생 농장별로 면밀하게 분석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하고 80%까지 추가로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한다.

축산방역 관련 정책자금 지원도 5년 동안 배제할 방침이다.

실제 지난겨울에 발생한 11개 농가의 경우 위반 사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을 5%에서 최대 30%를 감액 조치한 사례도 있다.

전남도는 AI 오염원 제거를 위해 오는 20일까지 일제 집중 소독 기간을 운영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합동점검반 100여 명을 투입해 소독 실시 여부 등 농장주의 기본방역수칙 이행상황을 특별 단속하기로 했다.

한편 무안 오리농장과 영암 오리·산란계 농장에서 잇따라 'H5형 AI 항원' 이 검출돼 전남도가 예방적 살처분을 포함한 긴급방역 조치를 했

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농장주가 폐사증가 신고를 한 무안 1곳, 영암 2곳 가금농장에서 채취한 시료를 검사한 결과 지난 10일 'H5형 AI 항원'으로 확인됐다.

항원이 검출된 영암 육용오리 농장은 1만5500마리, 영암 육용오리 농장 2만9000마리, 산란계(알 낳는 닭) 농장은 3만9000마리를 사육 중이었다.

올 겨울 들어 전남지역 가금농장에서 'H5형 AI 항원' 검출은 이번이 누적 17·18·19번째이다.

전남도는 무안과 영암 가금농장에서 AI 항원이 검출되자 조동방역팀을 투입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방역차량 18대를 동원해 집중 소독을 했다. /박종배 기자

수돗물 아껴 쓰면 최고 13% 요금 감면 광주시, 전년 동기 40% 절감 가구에 한시 적용

수돗물을 전년 동기 대비 40%까지 절감한 가구에 최고 13%까지 요금을 감면한다.

광주시에 따르면 가금 상황 장기화로 수돗물이 부족한 상황에 대비, 광주시 수도급수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요금 감면 제도를 한시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상수도 요금 감면 제도에 따라 수돗물을 사용하는 광주시 전체 수용가를 대상으로 올해 11월 사용량부터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 수돗물을 10% 절감한 경우 절감량의 100%를 감면하고, 10% 초과에서 40% 이하 절감량에 대해서는 절감량의 10%의 요금을 추가 감면한다.

예를 들어 전년 동기 20m를 사용한 가구가 올해 10%를 절감하면 3230원(2만2770원→1만9540원)을 감면받으며, 20% 절감하면 5510원

(2만2770원→1만7260원)을 감면받는다.

당월 사용량이 0인 경우 이사 정산·옥내 누수·급수 정지 중지·업종변경·제한급수 돌입 때는 제외한다.

이번 수돗물 절약 요금 감면은 상수도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전년 도와 올해 11월분 수도계량기 검침값을 비교해 절감량이 발생할 경우, 내년 1월분 수도요금 납부고지서에 요금 감면액을 반영해 발송한다.

일반가정 등 모든 수용가를 대상으로 수돗물 절약을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광주시는 이 제도가 가금극복을 위한 수돗물 절약은 물론, 시민의 물 절약 실천 의식 고취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일상 기자

광주시, 고향사랑기부제 담례품 공급업체 모집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광주시가 담례품 공급업체 모집에 나섰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재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로 기부하면 지역별 담례품과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기부금은 주민복지 증진에 사용한다.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의 핵심 목적은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는 것이다.

광주시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광주시 기부자에게 제공할 담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업체를 공개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농축산물(쌀·농축산 꾸러미), 농축산 가공식품(김치·우리밀·가공품·요차류·김부각·된장·간장세트), 공예품(진다리북·공예품) 등 9개 품목이다.

배송 비용은 1건당 3000원까지 광주시에 지원한다. 추가 비용은 공급업체가 부담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다.

자격은 광주시 관할구역 안에서 담례품으로 선정된 품목을 생산·제조하는 시설을 갖추고 생산·공급·배송할 수 있는 업체다. 담례품중 농축산물은 광주시 관할구역 내에서 생산돼야 한다.



지난 9일 오후 영암군 삼호읍 솔라시도대교 유지관리사무소에서 열린 해남 산이면 대진리와 영암 삼호읍 서호리 잇는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통식에서 김영록 지사가 감사패를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영암·해남 기업도시 솔라시도, 진입도로 개통...7년 공사

접근성 향상으로 투자 촉진·조기 활성화 기대

전남도가 영암과 해남 일대에 걸쳐 조성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인 '솔라시도'의 접근성 향상과 지역 주민 편의 증대를 위해 추진한 진입도로가 지난 9일 오후 5시 전면 개통됐다.

이날 개통식에는 김영록 지사, 서동욱 전남도의회 의장, 명현관 해남군수, 우승희 영암군수, 지역구 도의원, 군의원,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축하했다.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진입도로는 해남 산이면 대진리에서 영암 삼호읍 서호교차로(IC)를 연결하는 총연장 12.19km, 4차로 신설 도로다.

이 도로는 총사업비 3155억원을 들여 2015년 12월 착공했다. 완공까지는 총 7년이 소요됐다.

지난 2월 지방도 801호선으로 지정 고시되고, 6월 '솔라시도'로 광역도로명이 부여됐다.

주요 시설물은 영암호를 가로지르

는 연장 2.2km의 더블리브라이치교인 '솔라시도 대교' 등 교량 5개소, 평면·입차 교차로 5개소가 있다.

이번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통으로 서해안 고속도로와 남해 고속도로에서 무안 남악, 영암 삼호 도심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솔라시도 기업도시 접근이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40분 걸렸지만 30분으로 10분 정도 단축된다.

전남도는 기업도시 접근성 향상을 위해 투자 촉진과 조기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박종배 기자

“중국과 인적·물적·경제 교류 확대 기대”

강기정 시장, 상하이밍 주한 중국대사 접견

강기정 시장이 한·중수교 30주년을 맞아 9일 시청에서 상하이밍(58) 주한 중국대사를 접견하고 중국과의 교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상하이밍 대사는 전국에 설치된 24개의 공자학원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광주를 찾았다.

강 시장은 “광주에는 중국 총영사관이 자리잡아 다양한 부문에서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다”며 “중국은 발전 가능성이 큰 시장인 만큼 코로나19가 호전되면 그동안 침체됐던 투자와 무역이 다시 늘어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적·물적 교류를 위해서

는 항공 등 교통 여건이 선제돼야 하는데 현재 무안공항에 국제선 취항이 많지 않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며 활발한 투자유치 의지를 전달했다.

상하이밍 대사는 “한·중수교 30년이 됐지만 우리는 수천년 전부터 이웃으로 지내며 문화·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이다”며 “코로나19로 침체된 교류가 내년 봄 즈음이면 다시 활발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특히 호남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만큼 문화·경제적으로 활발히 교류하며 윈윈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일상 기자

전남도, 국산김치 자율표시제 ‘전국 1위’

44% 점유...5748곳 지정

대한민국 김치산업을 선도하는 전남의 국산김치 자율표시제 지정 실적이 2년 연속 전국 최상위를 유지했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의 국산김치 자율표시제 지정 실적이 5748곳으로 전국(1만 3037곳)의 44%를 차지하며 2년째 전국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국산김치 자율표시제’는 100% 국산김치를 사용하는 음식점, 학교 등 단체 급식소, 기업체, 병원 등을 인증해주는 제도다.

인증마크를 부착해 소비자가 음식점 밖에서 국산김치 사용 인증업소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이 제도는 전남도가 지난해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와 협약을 통해 처음으로 시행한 이후 전국 확산을 주도한 민·관협업형 사업이다.

전남저작권서비스센터

전남저작권서비스센터는 도내 중소기업의 권리보호를 위한 저작권 서비스부터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위한 사업화 지원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저작권 등록

저작권 등록 비용 지원

저작권 상담

저작권 전반에 대한 실무상담 지원

저작권 육성지원

시제품 제작, 홍보마케팅 등 사업화 지원

SW관리체계컨설팅

SW사용 실태진단 및 개선방향 컨설팅 지원

산업현장컨설팅

계약서 검토 및 법률자문 서비스 지원

QR코드로
신청 바로가기!

문의 : 061-280-7493 / pjy@jcia.or.kr